

'탄소저장고' 국산목재 활용한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논의

산림청(청장 임상섭)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산림과학원, 지방자치단체,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, 목재친화도시 및 목조건축 실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.

이날 연수회에서는 국내·외 산불 피해목의 이용 사례 특강, 목재친화도시 및 목조건축 실연사업 사례 등 그간 추진한 사례와 함께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.

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해 전국에 총 34개소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.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*은 국산목재를 활용해 건축·주택·거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, 목조건축 실연사업**은 국산목재를 활용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.

*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: 총10개소, 개소당 총 50억원/4년간/국비 50%

** 목조건축 실연사업 : 총24개소, 개소당 총 130억원/4년간/국비 50%

국산목재는 UN기후변화협약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'탄소저장고'로 철강, 콘크리트 등 탄소배출 소재를 대체할 수 있어 탄소감축 효과가 뛰어나다.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목재는 스트레스, 천식 등을 감소시키는 인체친화적 소재이다.

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“목조건축은 산림부문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국내 목재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 중 하나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확대,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	책임자	과 장	이성진 (042-481-4200)
		담당자	사무관	이진수 (042-481-4204)